변화하는 현실, 흔들리는 학생운동

학생운동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획시리즈(1)—문제제기

글싣는 순서
1. 문제제기-현실을 읽자
2. 집회 · 시위 양식의 변화
3. 문예운동의 변화
4. 학생회의 변화
5. 학생운동 사상의 변화
6.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좌담)

네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학생운동은 변화하고 있느냐"는 네 물음이 의외였기 보다는 그물음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는 거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네가 굳이 '학생운동은 변화하고 있는가'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내 나름대로 학생 운동에 대해 뭔가 한고심은 이야기가 잔뜩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

네 이야기를 듣고나서 학생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를 가졌어. 그렇지만 학생운동의 테두리를 떠난 지 10년이 훨씬 지난 나로는 학생운동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나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므로 내가 학생운동은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런 점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생각해. 또한 나는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제시할 만큼 풍부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않아.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학생운동의 무한한 발전을 바라는 한 선배의 충고 정도로 받아들여 너와 너의 동료들이 고민하는데 참고로 삼아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실 변화에 둔감한 학생운동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고전적 명제를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예컨대 학교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학생운동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입장이 바뀔수도 있단 말이야. 바람이 동쪽으로 부는 날이면 동쪽에 사는 주민들은 "쇠하랑 오늘 시위 아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이런 이야기부터 꺼내느냐 하면,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현실의 이런 변화에 대해 너무 둔감하지 않느냐는 염려(?)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형 무슨 소리야"라며 항의하려는 너의 모습이 떠올라. 그렇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해 주고 싶어. 언젠가 네 책상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본 적이 있었어.

그땐 솔직히 말해 좀 실망스러웠어. 네 책이 적어서가 아니야. 그렇다고 앞 페이지 몇장만 대충 훑어보다가 책장에 정중히 모셔 놓은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도 아니야. 사회과학출판사를 경영하는 친구들이 "요즘 학생들은 책을 너무 안 읽는다고 읊어놓는 불평이 무색하리만치, 정치경제학, 철학, 역사, 관련서적이 주종을 이루는 너의 책장은 매우 풍족한 편이었어. 물론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게 잘못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사회과학 서적만(?)읽는다면 문제야. 사회과학이 현실을 보는 눈을 키워줄 지언정 사회를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아.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 서적은 현실을 해석하는 도구일 뿐이야. 바둑에 다 비유하면 정석인 셈이지.

바둑의 대가들은 "정석은 보고 잊어버려라"는 말을 해. 왜 그럴까. 바둑판의 현실은 결코 정석대로 짜여지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바둑을 두면서 정석을 고집하면 대개는 지게 돼 있어. 상대도 그 정석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바둑판의 현실에 주목하는 거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외곡에 따라 그 이름의 빛이 많이 바랬지만, 마르크스의 정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

마르크스가 그의 방대한 저작을 저술한 시기는 19세기야. 그 시기 우리 동양권에는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도 극소수였잖아. 그런데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해서 자기의 이론을 정립했어. 이를 위해 마르크스는 대영박물관을 거의 홀다시피 한 것은 물론이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어. 그랬기에 시대를 뚫어본 위대한 사상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야.

레닌의 독서습관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 자넨 유네스콘가 하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레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통독하여 있다군. 레닌은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문학 작품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독파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 문학이야말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레닌은 당대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정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기의 전략전술의 수립에 참고했고, 대중에게 다가서는 슬로건을 개발했거야.

관념적 과격성은 편식의 산물

어쭛든 사회과학 서적에만 독서를 제한하는 것은 지적 편식이라고 생각해. 지적 낭만도 허합하지만, 지적 편식 역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 편협하고 도식적인 사고를 낳기 때문이지.

도식적 사고는 자기 머리속에 있는 그림에다 현실을 꿰어 맞추려 들어. 그러다가 현실이 자기 도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왜 그런지 평가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관념적 과격성 속으로 도피해 버리지.

언젠 어디서나 검사창원의 메시지만 남발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학생운동의 관념적 과격성을 확인한다고들 해.

심지로 학생운동이 주장하는 내용은 많은 경우 현행의 시기에 적 과격성이라는 자기 몇에 걸린 일본과 독일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해서 테러리즘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장난끼 도는 장례행렬

지난 91년 광역선거때의 일이다. 신기에 출마한 친구 시위에 참여다가 어는 단체에서 발행한 '선거지침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책자 가운데 '운동권 학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더군.

귀정 학생의 장례식을 마쳤을때, 하나같은 지적은 장례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가 연도에 나온 시민들의 정서를 너무 무시하는데 거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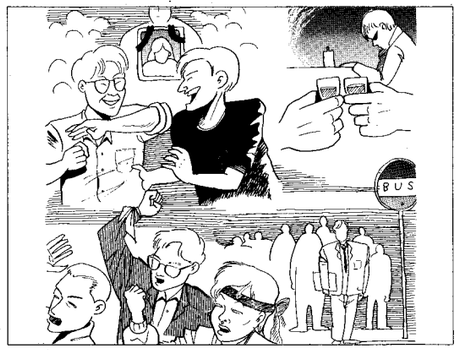
그 대표적인 예가 장례행렬 사수대의 표정과 자세야. 연도에 나온 시민들은 가장 먼저 장례의 장엄함과 비감함을 예상했었지. 그러나 제일 먼저 시민들의 눈에 비친 사수대의 모습은 동료 학생을 떠나보내는 장례 행렬의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자세였어. 때문에 같이 웃기도 하고, 따르는 장난기 섞인 행동까지 연출하는 그들의 표정속에서 시위하는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 정권에 대한 적개심도, 동료 학생에 대한 애도의 표정도 찾아 보기 어려웠어. 그 모습을 바라본 시민의 생각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동료들마저 애도하지 않는 장례를 일반 시민들이 애도해 주기를 바랄 수있을까? 학생들의 도덕성마저 의심하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다른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날 역시 보이지 않는 선이 시위대와 연도의 시민 사이를 확연하게 가르고 있었어. 학생들은 열심히 선동을 하는데, 시민들은 안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지 않으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침묵으로 일관하며 현실에서 단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산층의 현실 안주의식 탓일까. 물론 중산층의 개혁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말잘 는 다수가 사회의 기둥'이라며 부추겨온 언론의 선동에 따라 부쩍 보수화된 길로 내달고 있는 중산층을 탓할수도 있겠지. 그러나 보수화된 중산층의 현실 안주의식만 탓한다면 학생운동이 설 땅은 좁다고 봐.

보수화의 길로 치달고 있는 중산층마저 끌어들여야 학생운동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의 시위문화를 보면, "민주시민 동참하라 출퇴근하라"라는 노래는 있어도, "민주시민 동참하라"는 구호는 없어도,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은 대단히 협소해. 참리모은 옳은 학생들의 대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위 대열이 신속한 것도 그런 이유야. 그러니 학생운동의 목표는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을 확대하라"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의 시위문화를 보면, "민주시민 동참하라 출퇴근하라"라는 노래는 있어도, "민주시민 동참하라"는 구호는 없어도,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은 대단히 협소해. 참리모은 옳은 학생들의 대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위 대열이 신속한 것도 그런 이유야. 그러니 학생운동의 목표는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을 확대하라"는 것이야.



학생운동 전망은 있는가

국제사회의 급변과 정부의 대국민통치 전략속에서 누구도 자신있게 미래의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학생운동이 갖고있는 문제점을 해부, 현실을 보다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새롭게 변혁해야 할 학생운동의 참된정을 찾아나가려고 한다.
그 첫번째로 한선배가 학생운동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후배에게 보내는 글이다
〈편집자 註〉

편중된 지식이 낳은 관념적 과격으로 현실과 괴리 위험
감정대립에 이른 정파분열, 창조를 위한 진통 되어야

관념적 과격성은 우선시 하는 극좌모험주의자들의 선전일 수는 있을 지언정, 현실속에서 투쟁의 역량을 하나하나 모아서 마침내 변혁의 그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관념적 과격성이 그렇로만 같나면 그래도 다행이야. 관념적 과격성은 자기의 도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랑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현실에 무지한 자신을 방어하려는 독선과 아집으로 흘러버리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기에 문제점을 제기 하려는 거야.

아뭏든 현재 학생운동은 관념나 가능한 주장이 태반이야. 혁명의 시기에나 가능한 주장을 일상 투쟁에서 요구하는 자세는 자기 만족만을 우선시 하는 극좌모험주의자들의 선전일 수는 있을 지언정, 현실속에서 투쟁의 역량을 하나하나 모아서 마침내 변혁의 그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자세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관념적 과격성이 그렇로만 같나면 그래도 다행이야. 관념적 과격성은 자기의 도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랑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현실에 무지한 자신을 방어하려는 독선과 아집으로 흘러버리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기에 문제점을 제기 하려는 거야.

아뭏든 현재 학생운동은 관념적 과격성이라는 자기 몇에 걸린 일본과 독일의 학생운동이 어떻게 해서 테러리즘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장난끼 도는 장례행렬

지난 91년 광역선거때의 일이다. 신기에 출마한 친구 시위에 참여다가 어는 단체에서 발행한 '선거지침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책자 가운데 '운동권 학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지 말 것'이라고 쓰여 있더군.

귀정 학생의 장례식을 마쳤을때, 하나같은 지적은 장례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가 연도에 나온 시민들의 정서를 너무 무시하는데 거었어.

그 대표적인 예가 장례행렬 사수대의 표정과 자세야. 연도에 나온 시민들은 가장 먼저 장례의 장엄함과 비감함을 예상했었지. 그러나 제일 먼저 시민들의 눈에 비친 사수대의 모습은 동료 학생을 떠나보내는 장례 행렬의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자세였어. 때문에 같이 웃기도 하고, 따르는 장난기 섞인 행동까지 연출하는 그들의 표정속에서 시위하는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폭력 정권에 대한 적개심도, 동료 학생에 대한 애도의 표정도 찾아 보기 어려웠어. 그 모습을 바라본 시민의 생각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동료들마저 애도하지 않는 장례를 일반 시민들이 애도해 주기를 바랄 수있을까? 학생들의 도덕성마저 의심하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다른 시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날 역시 보이지 않는 선이 시위대와 연도의 시민 사이를 확연하게 가르고 있었어. 학생들은 열심히 선동을 하는데, 시민들은 안도에서 차도로 내려서지 않으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침묵으로 일관하며 현실에서 단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산층의 현실 안주의식 탓일까. 물론 중산층의 개혁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말잘 는 다수가 사회의 기둥'이라며 부추겨온 언론의 선동에 따라 부쩍 보수화된 길로 내달고 있는 중산층을 탓할수도 있겠지. 그러나 보수화된 중산층의 현실 안주의식만 탓한다면 학생운동이 설 땅은 좁다고 봐.

보수화의 길로 치달고 있는 중산층마저 끌어들여야 학생운동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의 시위문화를 보면, "민주시민 동참하라 출퇴근하라"라는 노래는 있어도, "민주시민 동참하라"는 구호는 있어도,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은 대단히 협소해. 참리모은 옳은 학생들의 대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시위 대열이 신속한 것도 그런 이유야. 그러니 학생운동의 목표는 "민주시민이 동참할 공간을 확대하라"는 것이야.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자

이야기를 하다보니 학생운동의 약점들만 너무 들춰낸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학생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해. 그런 점에서 굳한 이야기만 늘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아. 선배의 노파심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하며,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학습을 한번 더 강조했으면 해.

지금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바뀌고 있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현실 사회주의(actually existing socialism)의 붕괴이 우리 사회의 정세 변화에 초래한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지배계급의 국민통제 전략도 더욱 교묘하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 민중운동 전체는 깊은 침체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혹자는 우리 운동의 위기라고까지 단정하기도 해.

일시적 침체든, 전반적 위기든 현실이 우리 운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변화된 정세, 변화된 압무, 변화된 주체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부탁한다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모습과 내용을 가지고 대중의 가슴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야 한다고 봐.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학생운동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신 경 준
〈노동운동가〉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기업문화 '脫'시리즈—③
럭키화재 국내최초 미국지사 개설편

脫
固·定·觀·念
외국자본 국내진출의 위기를 우리자본 외국진출의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금융개방 압력에 맞선 한국 보험업계 최초의 미국 진출 — 문턱속에 연연하는 우물 벗하기 보다는 세계의 금융 심장부에 먼저 뛰어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방시대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틀에박힌 사고를 버리고 개척의 정신으로 뛰는 젊은 인재들 — 럭키금성의 전위적인 기업문화 속에서 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업계 최초, 미국지사 개설 실무담당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외국자본의 능력은 다소 저렴한 해준 된다해도 그들의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의 준비이 최선의 주비 아닙니까!" "국내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해서는 지금 세계 금융의 심장부이기도 하는 뉴욕에 특수팀을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한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뉴욕 보험청의 높은 콧대를 꺾고 마침내 현지 지사 개설 허가를 따냈을때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턱에만 연연했던 우물안 시각 보다는 넓은 세계의 금융 심장부에 먼저 뛰어들어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럭키금성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럭키금성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오직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럭키화재 이종욱 과장은 겸손해 하다.

럭키금성